

‘고사 직전’ 소상공인에 심폐소생...추경예산 3.6조 확보

중기부, 지역신보재단에 800억원 · 기술보증기금에 680억원 지원

청년창업지원사업 103억원 증액 반영...창업 도전하는 청년들 독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청년창업 지원 등을 위해 3조614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03억원이 증액 반영됐으며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 등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에 800억원, 기술보증기금 출연에 680억원이 지원된다.

지난 3일 국회 심사를 통과한 중기부 추경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한

사업이 반영됐다.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에 800억원이 들어간다. 중기부는 최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에 건전성을 위협받는 16개 지역신보재단에 기본재산을 출연해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술보증기금 출연에 68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기보기금 출연 증액을 통해 코로나 특례보증을 신규로 6000억원을 공급하는 등 최근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도록 했다. 특히 탄소기저평가모델 등을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이

용 효율화 기술을 보유한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보증공급 1000억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비대면 분야 진출을 돕기 위해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사업 예산 7조600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상대적으로 온라인 진출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전국 38개 전통시장에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해 온라인 판로 개척과 성공을 돕도록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성장세가 가파른 비대면 분야의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는 총 103억원이 증액됐다. 우선 비대면 분야 청년 창업 아이디어 발굴지원 사업에 2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이 사업은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독려하고 비대면 분야 육성을 위해 신규 반영된 사업이다. 중기부는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창업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 경진대회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수 아이디어 보유 청년에 대해서는 사업모델 고도화 멘토링과 함께 초기 사업과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오픈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63억원이 들어갔다. 기존 예비 창업자 지원사업에 청년 지원에 산을 별도 증액한 것이다.

사업계획이 일정 수준 이상 구체화돼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들이 필



요한 창업교육, 창업바우처, 경영컨설팅 등을 1억원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창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는 20억원이 증액됐다.

이 사업은 청년 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나 기술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 2000개사가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에 신속하게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신봉우 기자

생애최초 · 신혼 특공 늘어나...대출 막혀 ‘그림의 떡’

“일반 가점제 물량 줄어 역차별” 4050불만도 해결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이 확대되더라도 대출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결국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점제 청약에 기다리는 사람들의 쌓인 불만 역시 풀어야 할 과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늘리나...대출규제 완화 지적도

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는 주택 청약 제도 중에서 특별공급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 받을 방안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민주택(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 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은 80%다. 항목별로는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30% △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이다.

민간 분양 주택은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43%다.

여기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을 늘리면 국민주택의 경우 100% 특공으로 청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민간 분양에는 생애최초 특공이 없지만, 신혼부부 비율을 확대하면 전체 특공이 5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자금력이 약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금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로는 수도권 내 분양 아파트를 젊은 신혼부부가 분양받기 사실상 힘들다는 설명이다.

◇“2030만 또 혜택”...전체 공급 확대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비율을 확대하면 반대로 일반 가점제 비율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한 4050세대의 반발은 누그러뜨리는 것도 정부의 과제 중 하나다.

현재 각종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신혼부부만 사람이냐’, ‘2030 지지자들을 위한 정책만 내놓으니 박탈감 느낀다’ 등

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가뜰이나 가점제 문턱이 높는데 특공이 더 확대되면 당첨가능성이 더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공급 자체를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특공 비율을 조정하는 것을 두고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결국 아파트 전체 공급이 늘어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문 대통령도 김 장관에게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신호를 줄 정도의 대규모 공급 확대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은 서울이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정비사업을 대부분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1년을 비춰보더라도 그간 정부가 발표했던 주택 공급 방안을 넘어서는 추가 공급물량을 계획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결국은 기존에 계획된 주택 공급물량에서 배분을 조정하는 것 이외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직장인 27.4% “조기 은퇴 꿈꾼다”

월 급여 41.4% 저축...은퇴 후 개인사업 및 창업 원해

직장인 27.4%가 본인을 조기 은퇴를 목표로 일하는 ‘파이어족’이라고 답했다.

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825명을 대상으로 파이어족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7.4%가 ‘나는 파이어족’이라고 답했다.

여성(23.8%)보다 남성(32.4%)이, 20대(21.3%)보다는 30대(29.5%)에게서 응답 비율이 각각 높았다.

파이어족(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은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조기 은퇴하겠다는 목표로 회사 생활을 하고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20대부터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이들이 조기 은퇴 이후 목표하는 것으로는 부동산, 주식 등 투자(20.6%), 인생 2모작, 노후준비(20.0%) 등 이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항목은 사업·창업(33.1%)이었다.

특별한 계획 없음을 꼽은 비율은 23.8%로 파이어족 4명 중 1명은 은퇴 이후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파이어족의 월 평균 급여(주관식)는 267만원이었다.

그 중 41.4%를 저축해 월 평균 저축금액은 110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용돈비율은 월 급여의 22.0%로 저축비율의 절반에 그쳤다.

파이어족은 코로나19 이전 월 평균 58만7000원의 용돈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40만8000원으로 줄었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지난 달 24~26일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41%이다.



하이트진로, 상반기 中소주판매 58% ↑

달콤한 맛 선호...올해 소주류 2500만병 판매 예상

하이트진로는 올해 상반기 중국 시장에 수출한 소주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하이트진로가 현재 중국에 수출 중인 소주류는 참이슬·과일리큐르 4종(자몽·청포도·자두·딸기에이슬)이다. 중국 내 3만3000여개 마트·편의점에서 판매된다.

이 중에서도 과일리큐르 제품이 판매량 상승을 견인했다. 중국 내 과일리큐르 판매량은 4년간 연평균 98.6%씩 성장했다.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6%에서 지난해 36%로 크게 늘었다. 하이트진로는 주류 운

리안 판매가 가능한 현지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와 ‘징둥’에서 판매된 과일리큐르는 최근 3년간 판매 물량 증가율이 연평균 71%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중국에서 소주류 제품을 총 2500만병 이상 판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정호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총괄 상무는 “과일리큐르 조화롭고 달콤한 맛 덕분에 해외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지 맞춤형 홍보와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유나 기자

이스타항공, 임시 주총 또 무산...노조 “제주항공이 구조조정 종용”

‘셋다운’ 지시 · 구조조정 규모 사전에 제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열린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3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조를 외치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등은 제주항공 모회사 애경그룹과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규탄하고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밀린 임금 지불 등을 요구했다.

이스타항공 임시 주주총회가 또 다시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이스

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셋다운’을 지시한 데 이어 구조조정 규모도 사전에 이스타항공측에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날 오전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지만 10여분만에 폐회를 선언했다.

이스타항공이 인수자 제주항공에 신규 이사·감사 후보를 요구했지만 제주항공이 후보 명단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26일에도 신규 이사·감사를 선정하기 위한 임시 주총을 열었으나 같은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23일 다시 한 번 임시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제주항공이 지난 3월 이스타항공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이후 이스타항공의 희망퇴직 규모와 보상액 등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사자 노조가 이날 양사 경영진에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운항 승무원 90명(기장 33명, 부기장 36명, 수승 부기장 21명)과 객실 승무원 109명, 정비직 17명, 일반직 189명 등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 이스타항공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록에는 구조조정 인력 총 405명에게 총 52억5000만원을 보상하는 안도 적혀 있다.

또 다른 문서에는 제주항공이 기재 축소(4대)에 따른 직원 구조 조정을 요구한 내용도 담겼다. 이스타항공은 구조조정에 대한 자구 계획은 있으나 급여 체납으로 인해 시행 시점이 늦어지고 있음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제주항공이 추가 대여금 50억원을 지급할 때에는 구조조정 관련 인건비로만 집행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들어갔다.

김민정 기자